

### 한국중공업, 말레이시아 시멘트공장 증설공사 수주 (96.6.12)

한중은 11일 말레이시아의 페락-한중 시멘트사가 발주한 연산 1백50만톤(일산 5천톤)규모에 시멘트공장 증설공사를 2억8천만달러에 일괄도급 방식(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말레이시아 페락주 빠당 랭가스지역에 건설되며 오는 99년2월 완공예정이다. 일괄도급방식에 따라 한중은 설계·토목·건축·기자재공급·기전설치 공사와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수행하게된다. 한편 한중은 지난 81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연산 1백50만톤 규모의 자산시멘트공장을 일괄도급 방식으로 건설한 것을 비롯, 지난 94년과 95년에는 세계최대인 연산 2백60만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시멘트공장과 나로공시멘트공장을 연속 수주해왔으며 지난 지난 86년 말레이시아 페락주와 합작으로 연산 1백20만톤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다.

### 건교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의무화 (96.6.13)

건설교통부는 13일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자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수도권내의 도로보조기층공사, 구조물 뒷채움공사, 성토공사 등에 재생골재의 사용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하고 서울국토지방관리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콘크리트등 건설폐자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건교부의 이같은 지침은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현장에서 연간 15톤트럭 7만대에 비해 해당하는 약70만톤의 폐콘크리트가 나오고있으나 대부분 쓰레기매립지로 반출되고 일부는 불법매립되는등 환경보전및 자원절약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콘크리트덩이를 잘게 부순 재생골재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지난 94년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때 발생한 콘크리트 덩이를 덕소우회도로에 사용해 본 결과 천연

골재보다 더 높은 강도를 얻어 품질이 양호하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이들 재생골재의 사용을 전면 확대했다.

### 해시염분함유량 현행대로 0.04% (96.6.24)

지난 6월 22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96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개정(안)에는 하천골재의 고갈로 사용량이 크게 늘고있는 바다모래의 염분함량 규제기준을 종전의 0.04%에서 0.02%로 낮추어 대폭 강화하려 하였으나 관련단체와 업체들의 이견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과의 협의.

이번 개정된 내용에 현행 KS레미콘 규격에 염분함량 0.04%를 존속 시행키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바다모래에 대한 염분함유량이 종전과 같이 0.04%로 확정됐다.

### 페타이어 소성로 연료재활용 처리비용 분담이견 (96.6.24)

타이어업계와 쌍용양회간의 페타이어를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원칙에는 합의 했으나 처리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최종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페타이어의 연료사용에 따른 별도 설비와 야적장의 설치의 비용에 대해 대부분을 타이어 업계가 부담하여 개당 2백원의 페타이어 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이어업계는 시멘트 공장까지의 운송비 부담은 인정하나 지금도 폐기물 예치금으로 개당 1백원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비용을 1년간 지불하는 외의 추가 비용부담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타이어협회는 일단 쌍용양회와 잠정합의한 "운송비와 처리비용 부담안"에 대해 금호 한국 우성등 타이어 3사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나 개별 업체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꺼리고 있어 최종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통산부, 할당관세 적용품목 16개 추가고시 (96.6.28)

7월 1일부터 통상산업부 소관 원자재 16개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이 가운데 철광석과 원면, 천연고무, 선철 등 4개 품목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율이 0%로 책정되어 수입관세가 폐지되고 6월 27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한 품목은 6월 중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한 시멘트를 포함, 철광석, 유연탄, 오르토아미노 페놀, 아세트 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천연고무, 니켈과, 아연과,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 페로실리콘, 냉간단조리용 선재등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가 관할하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 22개를 합해 38개로 늘어났다.

### 동양해운, 시멘트 전용운반선 진수식 (96.7.3)

동양해운(대표 허열)은 7월 3일 오전 경남 충무에 있는 신아조선소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1번째로 1만1천톤급 벌크시멘트 전용 운반선 '해정호' 진수식을 가졌다.

해정호는 연간 80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게 되며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 동양시멘트 인천 유통기지 및 목포 대불 유통기지가 본격 가동되면 이들 기지에서 인천 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예상되는 경인지역 및 서해안 지역으로 시멘트를 공급하게된다. 해정호가 진수로 동양해운은 총 11척의 시멘트 전용운반선에 연간 7백만톤의 벌크 시멘트수송능력을 갖추게 됐다.

### 동양시멘트, 아산 파일공장 준공 (96.7.19)

동양시멘트는 충남 아산지역에 연 20만톤의 생산능

력을 지닌 콘크리트파일공장을 7월18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년간 총 1백60억원이 투입돼 준공된 이 공장은 업계 최초로 '콘크리트자동정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충청 및 경기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 한중 티모르사의 시멘트공장건설 합의 (96.7.20)

지난 7월 20일 한국중공업(사장 朴雲緒)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지방정부의 기간산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티모르사(PT Bangun Timor Indonesia Pratima ; 사장 프리모토)와 연산 1백만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이 공사는 약1억8천만달러 규모로 올해중 한중이 설계·제작·설치·운전까지 맡아 9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한중은 이 공사 수주를 계기로 티모르 지방정부가 계획중인 발전소를 포함한 대형지역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현재 인도네시아 칠라참과 나로공 지역에 연산 2백60만톤 규모의 초대형 시멘트공장 2곳을 건설중이다.

### 동양시멘트, 말레이시아 합작 대규모공장 설립 계약 (96.8.6)

동양시멘트(대표 李栽馥)는 지난 8월6일 말레이시아 투가스 세자호텔라, 두타 뷰, 남 파드 등 3개사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 북서부 펠리스주에 연산 2백80만 규모의 시멘트 공장과 항만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또 말레이시아 수도 콰라룸푸르 지역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들 3개 업체와 공동으로 콰라룸푸르 인근 켈라항에 유통기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모두 5백72만달러를 투자하여 오는 99년초 완공되는 이들 건설사업에 동양시멘트는 10%(1천7백만달러) 지분으로 참여하며 사업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게 된다.

### 대만 튜텍스그룹, 필리핀 시멘트 공장 건설 계획 취소 (96.8.12)

지난 8월 11일 대만의 튜텍스그룹은 2억5천만달러 규모로 필리핀에 짓기로 계획했던 세계최대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설이 필리핀 정부가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함에 따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아시아월드 인터내셔널 그룹 및 일본의 마루베니사와 공동으로 필리핀 시멘트공장 건설을 추진했던 튜텍스는 당초 이공장이 첨단 환경보호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이공장의 분진공해를 필리핀 공해배출 최대 허용치의 1/3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필리핀 정부는 링가옌만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에서 북서쪽으로 2백30km 떨어진 볼리나오포에 세워질 예정이던 연산3백20만톤 규모의 이시멘트공장이 이 지역 해양환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건설 계획을 거부했다.

### 아시아시멘트, 대륙정밀 인수 (96.8.14)

아세아시멘트가 지난 8월 14일 정보통신사업 확대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대륙정밀의 지분 17.91%(66만4천4백86주)를 3백62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와함께 기룡전자와 대경전자의 지분 26.99%와 43.96%도 각각 47억원과 22억원에 인수했다. 아시아시멘트와 대륙정밀은 지난 4월 정부의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때 고희동 동아 롯데 일진등 8개 기업(각각 6.55%씩 출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국제전화사업자에 선정됐었으나 이번에 아세아시멘트가 대륙정밀을 인수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화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율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있어 국제전화 컨소시엄(온세통신)내 구성업체들간 지분상한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 동양시멘트의 매직어스, 장영실상 수상 (96.8.14)

동양시멘트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강도 접지저항

저감재인 '매직어스'가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8월14일 매일경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이재복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철근 녹이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가 주장 (96.8.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관리실 김공환박사가 강원산업의 철근부식 유해성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보통정도의 녹이 오히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인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미국콘크리트시방기준인 「AC1318 95」 7장 4절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조항에 따르면 유해한 정도의 녹은 처근의 기공·조립0104운반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특별한 처리를 하지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동양시멘트, 연산 20만톤규모 함안파일공장 가동 (96.8.25)

지난 8월 23일 경남 함안군 범수면에 연산 20만톤 규모의 콘크리트 파일공장이 동양시멘트에 준공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 120억원의 공사비와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됨에 따라 동양시멘트의 파일생산능력은 전북 익산공장, 충남아산공장을 합해 연간 60만톤이 되며 생산되는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경남 녹산공단, 전남 울촌공단,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 경남 양산시도 시 건설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동양시멘트 '콘크리트 재료공학' 발간배포 (96.8.30)

동양시멘트에서는 콘크리트 원재료 및 혼합재료의 특성과 배합설계를 비롯 시공상의 여러문제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콘크리트 재료공학'을 발간 전 국사업소와 고객에 배포하였다.